



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보험산업에 주는 의미

김진억 수석담당역

- 영국의 공인 보험전문기관인 CII(The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)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결과 중 보험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분석¹⁾하여 발표함.
 - 금번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21)에서는 크게 ① 기후변화 리스크의 주요 원인과 역사적 책임(온실가스 배출의 완화), ② 기후 관련 리스크의 영향(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목표 설정 및 재정지원 등), ③ 목표달성수단-기술적, 재무적 수단(매년 천억 달러씩 지원)-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.

- 파리 기후변화협약 중 보험 측면의 의미 있는 결과로는 “기후보험에 관한 G7 협의체(G7 Initiative on Climate Risk Insurance)”가 공식화되면서 보험산업에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임.
 - 본 G7 협의체는 2020년까지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개도국 국민 최대 7억 명에게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직·간접적 보험보장(4억 달러 규모)을 제공²⁾하는 것을 목표로 함.
 - 이에 따라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로 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³⁾되어 향후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- 기후변화협약 관련 손해보험 이슈들은 아래와 같음.
 - 재산보험⁴⁾ 언더라이팅 시 기후변화를 리스크 평가모델에 포함시켜야 함.
 - 2015년은 역사상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향후에 더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에 있어 기후 변화의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1) CII(2016. 1), “The Last Generation?: The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insurance”.

2) 최근 추정에 의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국가 중 약 1억 명만이 기후 리스크 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3) 구체적인 내용은 MCII(2016. 1), “COP 21: Understanding insurance in the Paris Package” 참조.

4) 건물보험, 사업중단보험, 건축 공사기간 중 위험부담 보험, 건물 조례 보상 보험, 파손물 제거 보상보험 등이 있음.

-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날씨파생상품과 대재해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기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.
 - 보험회사들은 기후 리스크 노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계약자에게 기후 리스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상품설계를 해야 함.
 - 또한 보험회사들은 단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처리 능력을 배양해야 함.
 - 탄소에너지업체에 기후변화로 초래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연관성이 매우 낮으며, 본 기후변화협약의 타결로 그 근거가 더 약해질 것임.
 - 보험회사는 에너지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 리스크 이전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.
- **생명보험의 경우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적었으나,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로 인한 사망률과 질병발생률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**
- 그동안 생명보험산업에서 기후변화가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 사망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OECD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고령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있음.
 - 날씨 관련 사망률이 매우 낮고 사망원인을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데 있었음.
 - 최근 증가하는 기후 변화는 재물손실뿐만 아니라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을 증가시켜 세계적으로 생명보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태풍, 홍수, 가뭄, 열파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는 건강과 조기사망 리스크에 영향을 주며,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특정 기후 변화의 영향이 보험심사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.
 -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재난으로 인해 매년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, 피해주민들이 장단기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음.
 - 온도 상승과 강우 패턴의 변화는 특히 매개체 전염병,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감염성 질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**따라서 국내 보험산업도 기후변화협약의 결과로 직·간접적인 기후 관련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기후 리스크의 이슈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후 관련 보험시장의 국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. [kiri](#)**